

청룡(靑龍)의 해를 맞이하며



김 홍 연

K-Risk 발간편집위원장
/삼부토건(주) 차장
bigyeon0@gmail.com

최근 고금리 및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주택사업 위축과 토목사업의 물량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건설 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.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힘들게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. K-Risk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믿으며, 본 매거진도 그에 일조하리라 생각합니다.

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K-Risk Magazine에서는 계속해서 연재해온 COSO의 전사적 리스크관리, 호주 정부의 국책사업 평가 지침인 ATAP의 방대한 지침 중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 T7 가이드, 미국 NIST에서 최근 발간한 시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, 미국 정부책임무원 GAO의 리스크를 고려한 일정 평가 최고 실무 내용을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가을호 및 겨울호까지 연재를 마치게 되어, 2024년 봄호부터는 새롭고 참신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회원 여러분도 좋은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난 12월에는 1~2일 양일간에 걸쳐 제4회 PRM(Project Risk Management) 컨퍼런스가 대전시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국내뿐 아니라 북미의 RM 전문가들도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많은 발표를 함으로써 선진 리스크관리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내년 제5회 컨퍼런스는 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국제 세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 이 대회에 관한 이모저모는 K-Risk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뉴스레터 12월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갑진년(甲辰年)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발전된 매거진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회원여러분 모두 푸른 용의 해인 올 한해도 용처럼 힘차게 날아올라 큰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